

신의 걸작품



청량산 가는 길



최 무 순

〈수필가 · 서예가 · 본회회원〉

매 월 한차례 재경(在京) 동창들이 한데 어울려 서울근교 명산을 찾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펼쳐 온 지 수 년이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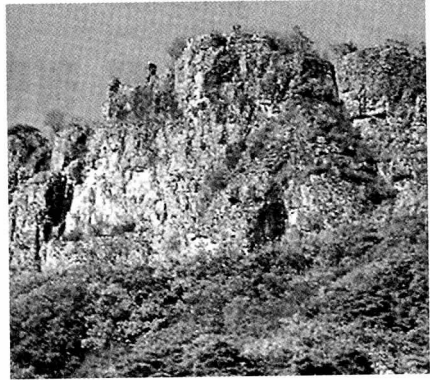
고교동창들끼리 모이는 행사라 부담없어 좋고, 계절변화의 정취를 만끽하게되니 정서적으로 여유로우며, 건강에는 등산이 으뜸이라니 이 또한 산행의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풍요로운 자연의 산야를 고스란히 심취케 되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늘 당일 코스의 산행이었지만 이번엔 1박2일의 청량산을 택하게 됐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청량산은 해발 870m로 보살봉, 금탑봉, 연화봉등 여덟개의 아름다운 봉우리로 이룬 명산으로 퇴계(退溪)선생께서 즐겨 찾으신 곳이기도 하려니와, 신라때 명필인 김생(金生)이 글씨 공부를 했다는 김생굴도 있다.

자연이 빚어낸 벼루, 연적이 천년 세월이 지

난 오늘에도 옛 모양 그대로 남아 있으니 천혜의 동굴 서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서깊은 곳에서 35년만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동창들이 한데 모여 변한 모습들을 보면서 추억담을 나누기로 했으니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다. 주말 오후 전세관광버스 출발지점인 서초구 민회관 앞을 찾았을 때엔 10대후반의 고3 시절로 돌아간 듯 다소 상기된 표정들이었다.



영동고속도로를 거쳐 원주 제천을 경유하는 중앙고속도로를 지나, 단양 죽령 회방사 풍기 영주를 질주하는 동안 차창 밖을 스쳐가는, 도약의 새 봄을 맞을 한가로운 농촌마을, 끝없는 산야의 그림같은 설경(雪景), 자연 훼손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지나는 곳마다 개발을 위한 건설장비의 힘찬 움직임, 모든 것이 밝은 미래를 예측케한다.

어둠이 깔린 죽령재를 넘으면서 들뜬 동심의 표정은 뒤로한채, 고행(苦行)의 지난날들이 너리를 스쳐간다.

60년대초 처음 상경(上京)할 당시 석탄을 연료로 한 기차에서부터, 70년대의 증기기관차, 80년대의 무정차 시외버스, 90년대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이 길을 통해 수도 없이 고향을 다녔건만 부모님 세상 떠신 후론 고향길이 점점 멀어져 만 가니 무슨 까닭에서 일까.

이런 고뇌의 회상도 잠시 리무진관광버스는 드디어 목적지 봉화에 도착했다. 예약된 모텔에 당도 했을때엔 해는 서산을 넘은지 오래고, 숙소 홍보게양대에는 환영 현수막까지 걸려있는 가운데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동창들이 마음껏 반기며 기쁘게 맞아 주었다.

강산도 세번이나 바뀌었을 긴 세월이 흘렀는지라 서로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 악수를 나눌때마다 아무개라고 스스로를 소개해야 할 지경이었다.

3반세기의 짧지 않은 세월을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잘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큰 출세를 위해 쉬지않고 땀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모일수 있었다는 사실과, 고급승용차에서 부터 여유있게 찬조금을 기부하는 등 자신있는 거동들을 보면서 다들 열심히 살아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더 젊었을때 만났다면 자존심이 상할수도 있을법 했겠지만 천차만별의 생활상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추억의 정답뿐이었다.

어느 대구거주 동창이 마련한 몇 마리의 흑염소 불고기에 의성지방 동창이 제공한 약주로 만찬의 분위기는 화기에애 그 자체였으며 뒷풀이 노래방 행사로 한결 고조된 잔치 마당이 되어 옛 정을 나누기에 손색없는 정경이었다.

밤을 지새며 나는 얘기중에 자식얘기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소재로, 며느리를 맞으면 따로 사는 것이 서로 편하다는 공통된 생각에서 부터, 모은 재산 아들 딸 구별없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마음 편히 노후를 맞는 지혜라는등 현대인의 삶의 실상을 엿볼 수 있었으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안동고를 양반 후손들 생각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느끼게 했다.

맑은 무궁해 공기를 보약 먹듯 듬뿍 마셔가며 하룻밤을 뜯 눈으로 보내고 다음날 산행에 들어갔다.

옛 성현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 세월은 흘렀어도 자연은 세월과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듯 변함이 없으나 인파로 뒤덮인 오솔길만이 인산(人山)으로 변했을 뿐이다.

심신수련을 위해 산을 찾는 것까지는 좋지만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만은 사라졌으면 좋으련만 계곡 구석구석 돌틈사이에 숨겨 놓고간 오물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자연을 파괴하는 오물들의 주인을 찾아 주는 환경보존운동이라도 전개 했으면 하는 충동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자연을 속이는 현대인이 되고 말았으니 변함없는 자연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할 것이다.

청량산의 수려한 모습 중에는 계란을 세워둔듯 후덕한 봉우리와 기암절벽의 산허리를 꼭메운 푸르디 푸른 소나무와 띠엄띠엄 아름답디 노송은 분재에서나 볼 수 있는 신이 만든 걸작품으로 극치를 이룬 가운데 한폭의 청전화(靑田畵)를 연상케 했다.

이황(李滉)선생께서 남긴 도산십이곡 중에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 하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 하리라”는 시조 한수가 마음에 와 닿는다. 내려다 보이는 것이 청산이요 유수다. 우리도 청산유수와 같이 오래 살고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들이겠지만 그게 다 욕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영겁(永劫)에 비하면 찰라(刹那)에 지나지 않는 인생, 하산길에 청량사(淸涼寺) 절에 들러 만고상청 빌어볼까. 하지만 합장불공 드리는 저 많은 중생들이 과연 소원대로 이루어질까. 부질없는 욕심인 것을 무거운 과욕일랑 낙엽속에 다 묻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하산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랜만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청량산 특유의 급경사길인 산행에서 얻은 땀방울 만큼 값진 결실의 만남이었음을 확신해 본다.

동창들이여 영겁의 장수를 누리는 산의 진면목(眞面目)을 거울삼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 보자꾸나. ≡